충남 서천 초루공종중 정기총회
수초당 文貞公 신도비 이건키로

▲ 초루공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 권병훈 종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금단金丹에 묘소가 있는 초루공草樓公은 추밀공파 문충공 양촌계 시조후 22세로서 좌해문장 예조참판 예문관제학 습재공習齋公 휘 벽擘의 4남이다. 휘가 겹 , 자는 여명汝明인데 호가 초루자草樓子여서 초루공으로 호칭한다. 9세에 지은 송도시松都詩가 동문선東文選에 오른 천재로 사마양시를 하여 생원·진사가 되었으나 아우 석주공石洲公 필 과 함께 난세에 강개하다가 벼슬은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에 그치고 뒤에 자손이 귀히 되어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당대의 명류로서 중봉 조헌趙憲·체소 이춘영李春英·교산 허균許筠·어우 유몽인柳夢寅·현곡 조위한趙緯漢 등과 도의문장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초루자집草樓子集을 남겼다. 이러한 초루공을 계파조로 하는 종중이 묘역하의 금단동에 있는데 그 종중이 4월 4일 11시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식당 '서림가든'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는 50여인이었다.

권병열權炳悅 총무가 개회의례를 행하고 권병훈權炳勳 회장이 개회인사말을 하여 회의가 시작되었다. 안건은 2008년도 결산보고 신도비 이전의 건 금복리 논 경지작업의 건 삼막골 임야 약2만평 임대의 건 인삼밭·유실수재배지 임대의 건 등이었다.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으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2008년도 결산안이 통과되었다. 결산은 2008년 12월 31일을 회계년도로 하였고,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3천8백40여만 원에 도조 및 토지임대료 수입 6백50여만 원 등으로 4천6백28만5천 원이고 세출은 재사 중수비가 2천7백만 원에 차기 이월금이 2천8백70여만 원으로 도합 4천6백28만5천 원이었다.

상정 안건 중 신도비 이전의 건은 초루공의 증손 수초당遂初堂 문정공文貞公 휘 변 의 신도비神道碑를 이전하는 문제였다. 이 신도비가 원래 금단동학의 왼쪽 어구에 있었는데 주위가 경작지화하여 볏논으로 둘러싸임에 따라 동네의 뒷산이 되는 문정공의 묘소 계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전한 위치가 수목의 산속이고 또 묘소와 사이에 길이 가로질러 나있어 차단이 되니 보기에 민망하였다. 이를 이번에 동구로 다시 내려 이설키로 한 것인데, 처음에 묘역에서 1킬로쯤 떨어진 금단일대 종산 입구의 독짐재라는 곳으로 위치를 잡았던 바, 신도비가 묘도墓道를 벗어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본방손의 의논에 따라 자리를 다시 잡아 금단 동학 오른쪽 어귀의 '백일홍나무자리'라는 곳으로 확정하였다. 새로 잡은 자리는 수초당 문정공의 손자 진명공震溟公(27世 헌)의 위토전인데 그 전 1백여평을 초루공종중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바, 진명공종중에서 이를 선대 종중에 돈을 받고 양도할 수가 없다 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키로 하였다.

<사진 · 글 權五焄>

오만상 五萬像

14면에서 계속

하였고, 당나라 초·중기까지 구경九經(《좌전左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역》·《서》·《시》) 에 들지 못하다가 당나라 말엽 십이경十二經(《좌전左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역》·《서》·《시》·《논어》·《이아爾雅》·《효경孝經》) 에 포함되었다. 오대십국五代十國 가운데 후촉後蜀의 2대 마지막 황제 맹창孟昶(919 965)이 십일경十一經(《좌전》·《공양전》·《곡량전》·《주례》·《의례》·《예기》·《역》·《서》·《시》·《논어》·《맹자》)을 칭할 때 포함되고, 남송 때 《논어》를 포함한 십삼경十三經(《좌전》·《공양전》·《곡량전》·《주례》·《의례》·《예기》·《역》·《서》·《시》·《논어》·《맹자》·《이아》·《효경》) 구성에 들고, 주희의 사서四書(《논어》·《맹자》·《대학》·《중용》)에 포함되었다. ◎《맹자孟子》: 맹자(기원전 372 기원전 289)와 그 문인들의 언행 일부를 기록한 책이다. 맹자는 이름이 가軻, 자는 자여子輿이고, 전국戰國 중기 추鄒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고향 곡부曲阜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았으며, 저명한 사상가·정치가·교육가로서 공자학설의 계승자이다. 공자처럼 맹자도 일찍이 학생들을 대동하고 위魏·제齊·송宋·노魯·등 ·설薛나라 등을 유력遊歷하였고, 한 번은 제선왕齊宣王의 객경客卿을 맡았다. 그의 정치적 주장에도 중용되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무리를 모으고 강학을 하면서 학생 만장萬章 등과 의논 끝에 저술을 결정하고 《시詩》와 《서書》의 순서를 정하여 공자의 뜻을 기술하였고, 《맹자》 7편을 지었다. 조기趙岐(108 201, 자 대경臺卿)는 《맹자제사孟子題辭》에서 《맹자》와 《논어論語》를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맹자》는 성인을 본받아 지은 것이라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는 가까스로 제자략諸子略 속에 《맹자》를 넣으면서 제자諸子의 책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한대漢代 사람들의 안목에는 이미 '경서經書'를 보조하는 '전傳' 정도의 책으로 간주한 것이다. 서한西漢 문제文帝(기원전 203 기원전 157, 제5대 황제 유항劉恒)는 《논어》·《효경孝經》·《맹자》·《이아爾雅》에 각각 박사博士를 두어 '전기박사傳記博士'라 불렀다. 오대五代에 이르러 후촉後蜀의 군주 맹창孟昶이 사람들에게 해서楷書로 십일경十一經(《좌전》·《공양전》·《곡량전》·《주례》·《의례》·《예기》·《역》·《서》·《시》·《논어》·《맹자》)을 돌에 새길 것을 명령하면서 그 속에 《맹자》를 포함시켜 경서 반열에 들게 하였

16면으로 계속

자동차 · 화재 · 건강 등 어떤 보험이든 하나만 들으시면
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구독회비는 무료가 됩니다!

국내 모든 보험회사의 온갖 상품을
일가분의 선호에 맞춰 완벽히 설계해 드립니다!

안동권씨종보사 종합보험 대리점

대표 권병일
서울종로구필운동288 - 1 02)723 - 4480 · 전송02)738 - 8935011-289-1747

■우리가취급하는국내의대표적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 현대해상화재 · 동부화재 · 메리츠화재 · 제일화재 ·LIG(LG)화재 · 흥국쌍용화재 · 그린(국제)화재

우리는라이프사이클변화에따른체계적보상과자유로운선택의맞춤설계형보험으로일가고객모든분께만족을드립니다!
실속있는맞춤선택에서충분한보상까지어떤보험상품이각자에게필요할까,
섬세한컨설팅을통해고객별로최적의맞춤형보험을만들어드립니다!